

시민과 함께 만드는 녹색대동세상 대전충남녹색연합

우) 301-82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0번지 창성빌딩 203호 / 전화 253-3241~2
F. 253-3244 / 홈페이지 www.greendaejeon.org / 이메일 daejeon@greenkorea.org

보 도 자 료

날 짜 : 2009년 11월 24일 (화)

발 신 : 대전충남녹색연합 (담당 : 양홍모 생태도시국장 253-3241, 010-2795-3451)

수 신 : 각 언론사 환경담당 기자

제 목 : 대덕대로 자전거도로 모니터 결과

대전충남녹색연합 '푸른자전거' 대덕대로 자전거도로(조성 중) 모니터 결과 자전거도로 안전성 및 연계성 확보 시급

대전충남녹색연합 회원모임 '푸른자전거'는 지난 11월 7일, 조성 중인 대덕대로 자전거도로를 모니터링하였다. 자전거 도로 폭 및 상태, 연계성, 안전성 등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안한다,

□ 조사 결과

1. 도로폭

- 전체구간의 자전거도로 폭이 90cm~240cm로 균일하지 않음
- 일부 120cm미만 구간은 매우 위험할 것으로 예측

조사지점	도로 폭
KT 둔산지사 앞	190cm
둔산경찰서 앞	154cm, 120cm
정부종합청사 앞	90cm
새로남 교회 앞	120cm
대덕대교 앞	124cm
상아아파트앞	190cm
초원아파트 앞	140cm
무궁화아파트 앞	120cm
선사유적지 앞	240cm
대전지방보훈청 앞	145cm



2. 도로상태 및 문제점

문제점	모습(사진)
① 우회전 차량과 사고 위험성 높음 대부분 사거리에서 자전거도로 이용시 우회전 차량과 사고 위험성 높음 특히 타임월드 앞 사거리는 횡단보도도 없어 사고위험성 매우 높음	
② 자전거도로 색깔 제각각 차도 및 인도의 자전거도로와 구분되게 통일된 자전거도로 색깔필요.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봄	
③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시 자전거 정지선 없음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시 정지선 및 대기공간이 없어 다시 인도로 올라가 대기해야 하는 상황. 자전거 도로에 대기시 우회전 차량과 충돌 가능성	
④ 버스정류장 앞 자전거도로 기능성 상실 버스정류장 앞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자전거도로에 나와 있고 짐들을 놓아서 자전거 통과 어려움, 안내표시 필요함	
⑤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는 불법주차 대비책 필요 차도와 자전거도로 분리대가 없거나 낮은 고무분리대의 경우 우회전 차량 및 주차차량 침범	
⑥ 자전거도로 상태 불량 : 배수구 배수구와 우수처리 경사로 인해 자전거도로 노면상태 불량하고 우천시 미끄럽고 차도 쪽으로 붙어 운행할 것으로 보임	

3. 기타 시설

- 1) 자전거신호등 : 전체구간에 자전거신호등 없음. 절대 필요
- 2) 안내 표지판 : 차량운전자의 자전거 이용자 보호 안내판 없음
자전거 관련 안내판 절대 부족

□ 개선 제안

1. 타임월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
2. 교차로 우회전 차량 속도 저감 및 자전거 이용자 보호 표시판 설치
3. 자전거 신호등 설치
4. 자전거도로 통일된 색깔 필요
5. 주변 자전거로 가볼만 한 곳 이정표 설치
6. 전체 구간 차량속도 제한 표시판 필요
7. 버스승강장 앞 자전거도로 표시판 필요
8. 자전거도로 주차 금지 표시판 필요
9. 자전거도로 최대 120cm 확보 필요
10. 자전거도로 우수로 등 불량한 곳 정비 필요
11. 일부 보도턱 있는 구간 완벽하게 보도턱 없애기
12. 교차로 자전거 정지선 및 대기 공간 필요
13. 자전거도로와 차도 분리대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설치
14. 야간 자전거도로 표시 및 안전성 강화

□ 문의 : 양홍모,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도시국장(253-3242, 010-2795-3451)